

자동차

Car

수입차 할인전쟁 2라운드 '시동'

BMW '320i 스페셜 에디션'

기존 가격보다 8% 인하 등

최고급 브랜드까지 '거품빼기'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업체의 공략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를 넘어 설 만큼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고급 브랜드까지 가격 인하 경쟁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에 대한 수요 급증과 수입차 업계의 가격인하 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수입차의 신규등록대수가 4천984대에 달했다. 이는 월간 등록 물량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수입차의 국내시장 누적 점유율도 5.6%까지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차 점유율이 향후 5년내 1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용성을 앞세운 3천만원 안팎의 수입차 모델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최고급 및 대중 브랜드까지 '할인' 대열에 동참하는 등 업계의 '거품빼기'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가격인하 경쟁 재점화=BMW코리아는 최근 3시리즈의 실속형 모델인 '320i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췄다. 스페셜에디션은 기존 '320i'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가격은 340만원 낮은 4천18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모델에 비해 가격이 8% 이상 인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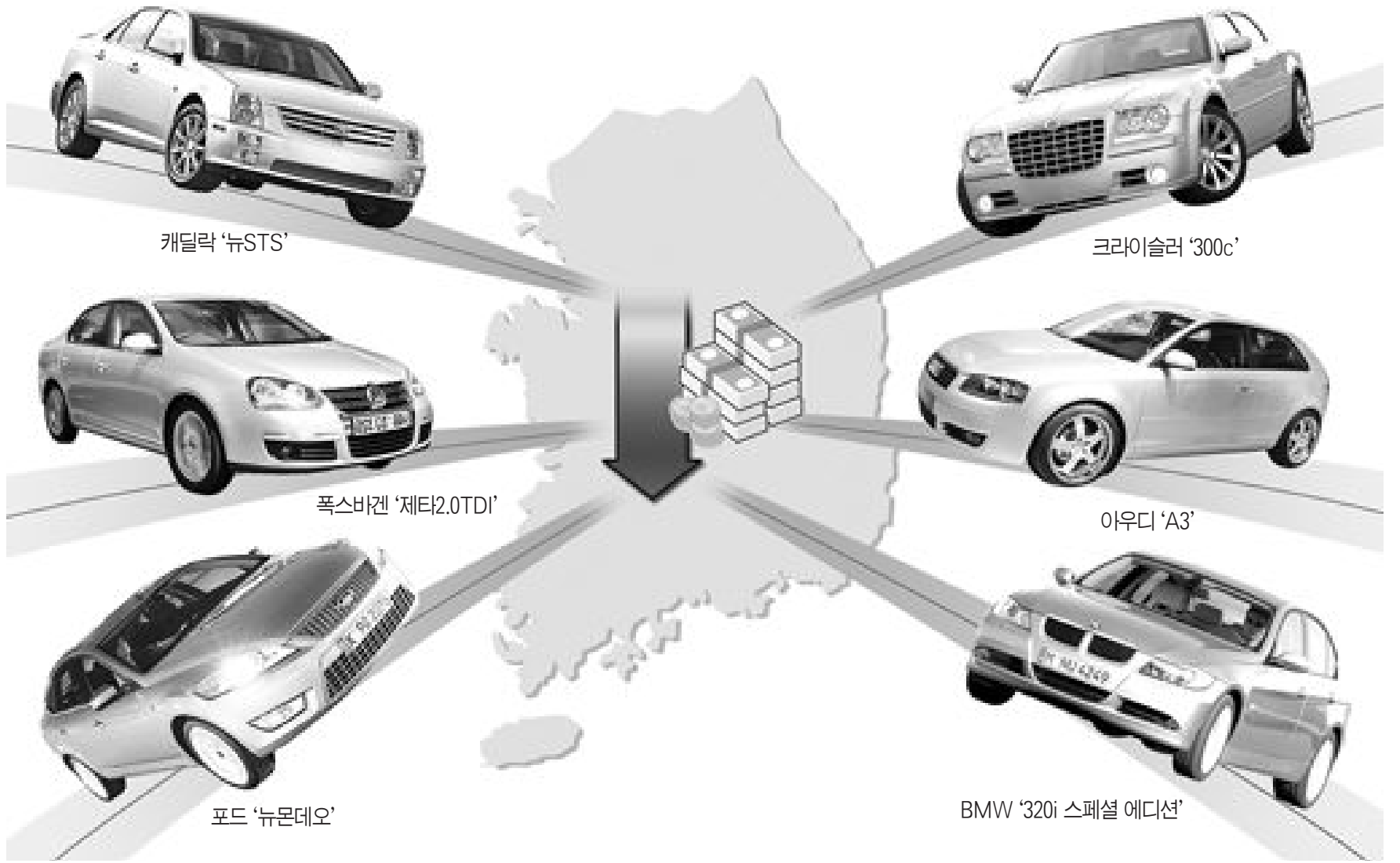
이에 앞서 BMW는 지난 5월에도 '뉴 528i'의 가격을 이전 모델인 '525i'보다 1천900만원 저렴한 6천750만원으로 책정했다. '뉴 528i'는 '525i'에 비해 엔진 배기량(2천996cc)을 높이고도 가격은 25% 이상 낮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달부터 가격을 인하한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신형 'C200K' 가격을 4천69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구형 'C200K(5천740만원)'보다 1천500만원(18%) 싼 것이다.

GM코리아도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출시한 '캐딜락 뉴STS'의 경우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크게 높이고도 가격은 4.7% 낮은 6천290만원으로 책정했다. GM코리아는 또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선보이는 '뉴 사브 9-3', '캐딜락 'BLS 디얼', '올 뉴 CTS' 등도 기존 모델에 비해 가격을 10~15% 낮출 계획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008년형 '폴로 2.0 TDI' 모델을 지난 9월부터 기존 모델보다 500만원 인하한 3천12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이 모델은 구입 고객 가운데 30대가 31%를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08년형 '제타 2.0 TDI'를 기존 모델보다 300만원 저렴한 3천190만원에 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앞서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지난 3월 '300C' 2.7ℓ 모델 가격을 500만원 인하한 4천480만원에 내놓았다. '300C' 모델은 지난 2004년 10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후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으로 지난 8월 현재 누적 판매가 3천대를 넘어섰다.



아우디 'Q7' 리콜

국내 시판 576대

아우디코리아는 'Q7' 모델의 트렁크 자동 개방장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22일까지 생산된 'Q7' 모델로, 국내에서



판매된 576대가 해당된다.

이번 자발적 리콜은 차량 트렁크 자동 개방장치가 잠겨 트렁크 문이 닫힐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트렁크 자동 개방장치 소프트웨어 최신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이다.

리콜 기간은 2008년 5월 8일 까지로, 전국 17개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병행수입 등 인하 경쟁 '점입가경'=SK네트웍스는 이달 말부터 벤츠, BMW, 아우디 등 일부 럭셔리 모델에 대한 병행수입을 시작한다. 도요타 중형차의 대명사인 '캠리'도 함께 수입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병행수입 모델을 기존 공식 수입가보다 10~1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벤츠 'S500'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통해 공식 수입된 모델 판매가가 2억66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SK네트웍스 판매가는 약 1억7천만~1억8천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캠리'의 경우 럭셔리가 아닌 도요타의 일반 브랜드로는 국내 첫 시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캠리'는 미국 시장에서 소나타보다 1천~3천달러 높은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캠리' 판매 가격이 3천만원 안팎에서 결정되면 국내 자동차업계에 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중 브랜드도 속속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 BMW는 국내에 1시리즈를 들여올 것을 검토하고 있다. 1시리즈는 BMW모델 중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다.

아우디의 경우 'A3' 모델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A3'는 아우디에서 만든 대중 브랜드다. 배기량은 2천cc급이며, 가격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초저금리·납부유예·등록세 지원 등

수입차 고객 확보 '파격적'

수입차업체의 국내시장 공략은 다양한 판촉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가격 인하와 함께 다양한 판촉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잠재적인 고객 확보에 나섰다.

한국닛산은 럭셔리 브랜드인 인피니티에 대해 12월까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인피니티 'G35 세단' 구매고객의 경우 3.6%대 초저금리 운용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수입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리(7~8%)의 절반 수준으로, 월 리스료를 1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BMW코리아도 파격적인 납부유예제도를 실시한다. 11월에 '740Li'를 특별 리스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하면 차량가격(1억6천60만원) 가운데 30%인 4천

774만2천원을 선납금으로 납부하고 36개월간 매월 88만8천907원을 납입하면 된다. 3년 후 납부유예금 7천957만원에 대해서 리스 계약을 연장하거나 완불한 뒤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11월 한 달간 크라이슬러, 지프, 다지 전 브랜드에 걸쳐 차종별 36개월 무이자 할부, 등록세·취득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크라이슬러 '300C 2.7'과 '3.0 디얼'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등록세(5%)와 취득세(2%)를 전액 지원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도 11월 볼보 최고급 세단인 'All-New S80 3.2'와 'V8 AWD 모델', SUV 모델인 'XC90 3.2' 구매고객에게 최고급 미즈노 아이언 세트 또는 사이판 여행권(2인)을 증정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현제 접수중

광주고시학원

227-1000

971-888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12월 3일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061-383-8283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떡이한과

061-383-8283